10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 4:9)"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함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케냐의 오랜 문화인 '하람베(Halambee)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함께 힘을 합치자! Pull together'라는 의미입니다. 케냐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 대통령의 슬로건으로도 쓰였습니다. 학교 도로 교회등을 만들 때 온 마을 사람들 더 나가서는 이웃 마을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툼비 갈릴리교회와 벧엘 교회에도 하람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동안 잠시 멈추어진 갈릴리 교회의 내부 공사와 벧엘교회의 화장실 공사 그리고 그동안 북만 치던 예배대신 마이크와 스피커 키보드등 찬양 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툼비 무윙기 지역의 이웃 교회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물론 선교비만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헌금하고 기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워짐이 성도님들 스스로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진행 되는 일들의 비용의 50% 정도가 성도님들 스스로 준비되어지면 나머지 50%를 선교비로 도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게 진행되어도 함께 교회를 세워감의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하람베 시간을 통해 모여진 헌금으로 그동안 멈추었던 벧엘교회 화장실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은 화장실 하나만 오픈되어 남녀가 함께 사용했으나 이제 남자 화장실과 여장 화장실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핑크 문을 좋아해서 핑크 색을 칠한 문을 만들어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는 예배 때 사용할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북만치며 찬양할 때와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힘찬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찬양에도 마이크를 사용하게 했는데, 산골에 사는 아이들이라 생애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너무 어색해 하였으나 이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골이어서 장비를 위한 기름을 넣어 전기를 만드는 제너레이터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솔라를 설치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소리가 크지만 그래도 전기가 들어와 악기가 작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Kiu에서 사역하시는 황명하 선교사님께서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 좋은 키보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키보드 칠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으나 학생들이 배운적도 없고 악보는 못 보지만 주님 주신 음악적 감각으로 키보드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벧엘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진 아진 유진에게도 케냐와 이툼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빠 손에 끌려온 선교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우기의 변화로 우물 사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2. 장학 사역과 연결되는 가축 사역을 위한 학업을 멈춘 학생들 가정 심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환절기에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